

§ 교회목표 §

- 1. 천국시민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 2018년 표어 §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 9:35)

†행동지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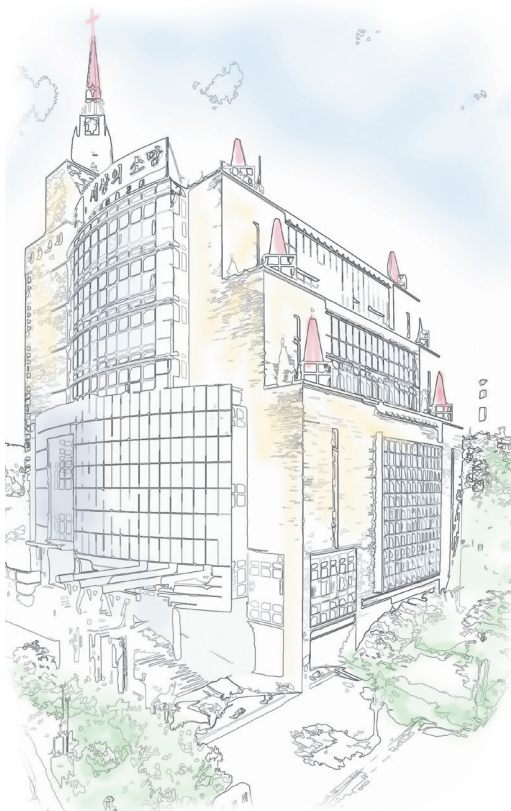
- 1.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는 거룩한 교회
- 2. 계대를 잇는 믿음의 가정들의 보편적 공동체
- 3.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적 교회

발행처 : 대한예수교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삼성로 51 길 7 전화:(02)558-1106 팩스 : (02) 558-2107 <http://www.iseoulchurch.or.kr>

 여호수아서 강해

하나님의 여리고 작전 I (여호수아 6:1~27)

이종윤 원로목사



여호수아 장군 막사에 둘러 앉은 참모회의는 자못 진지했다. 굳게 닫힌 여리고 성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을까라는 주제를 놓고 실전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전술(전략) 회의가 있었던 것이다.

그 곳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배출했을 것이다.

- 결사대를 조직, 침투케 하되 성벽을 기어 넘어가 닫힌 성문을 열자.

- 요새화된 성을 포위하여 완전 봉쇄하므로 자멸케 하여 항복하도록 하자.

그러나 여호수아는 자신이 총사령관임에도 불구하고 사령관의 사령관 되시며 최고 전략가 되시는 하나님의 작전에 의존키로 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네 손에 넘겨주었으니”(2절).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주셨다고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작전명령이 시달되었다. 어찌 보면 전략이나 전술이라기보다는 어린아이들의 전쟁놀이 같은 이상한 방법이 하나님으로부터 제시되었다.

- 모든 군사로 하여금 매일 한 차례씩 성 주위를 돌되 6일간 하라. 성을 돌 때에 온 백성은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3절)

- 제 칠일에는 성을 일곱 번 돌되 (4절)

- 제사장 일곱 명이 각기 양각 나팔을 불면서 언약궤 앞서 가고 (4절)

- 나팔소리가 날 때 큰 소리를 외치며 성이 무너진다는 것이다. (5절)

높은 성벽이 어떻게 나팔 소리에, 그리고 백성의 함성에 의해 무너질 수 있단 말인가? 그러나 여리고 성은 실제로 무너져 내렸다(20절).

여호수아의 승리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요단 강을 건넌 후 그토록 소원하던 가나안 입성을 앞에 놓고 그는 철저히 준비를 했다.

- 출애굽 이후 출생한 이들에게 길갈에서 할례를 행하여 하나님 백성된 확인을 받았다(수5:2 이하)

- 가나안 땅에 발을 딛자마자 첫 유월절을 지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다.

- 그 날 이후 하늘로부터 내리던 만나가 그치고 그 땅의 열매를 먹게 되면서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다.(5:12)

-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네 발에

신을 벗으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수5:15) 고 하심으로 모세의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되심과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확인케 했다.

인간의 준비가 아무리 완벽해도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야 승리가 온다.

I. 하나님의 작전 제 1단계는 일곱째 날을 기다리면서 백성들로 하여금 침묵하라 하셨다(10절)

떨어야 할 성을 돌면서 백만 명이 넘는 백성들로 하여금 입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라는 명령은 참으로 지키기 어려운 일이었다. 행렬의 대열엔 어른만 있는 것이 아니고 철없는 아이들도 있었다. 음악회에 가서도 헛기침하는 이들이 많은데 어떻게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성을 돌 수 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지 성경에는 자세히 나와 있지 않으나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했다. 거지떼 같은 훈련받지 못한 백성들이 때를 지어 성을 돌 때 병어리처럼 침묵시위를 하는 것을 본 여리고 사람들은 기가 찼을 것이다.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의 허물어진 곳을 찾는 것일까 아니면 할 수 없다고 단념하기 위하여 구경을 하는 것일까?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른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성을 돌면서 돌면 돌수록 난공불락이라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다.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기 전에 불가능하다 판단했을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면전에서 입을 다물라. 침묵하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는 기도를 하라”(10절)는 것이 하나님의 1단계 작전이다. 막다른 골목에 처했을 때 제발 자기 말 좀 줄이고 이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도록 하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너무 말을 많이 하고 있다. 이제는 자신의 입을 다물고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도록 하자.

하나님께 내 말하는 것이 기도인 줄 착각하지 말자.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것이 참 기도다.

하나님 음성을 더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조용한 시간을 더 많이 가져야 한다. 남을 원망하거나 자기 계략을 꾸미기 전 하나님 앞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음성을 듣자. 우리는 오늘 이 사회를 바라보면서 비난과 공격을 하기보다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기도 시간을 더 많이 갖도록 하자.

(다음 주 계속)



2018년 흥해작전(참모장 : 오치열 장로) 승전을 위한 행진이 시작되었다.

"교회 소생과 부흥(Church Revitalization & Revival)"을 주제로 6월 6일(수)~16일(토)까지는 오전 5시 30분에, 6월 18일(월)~ 25일(일)까지는 매일 새벽 5시부터 시작하여 17일간 진행되는 이 특별새벽기도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해라는 커다란 장애와 시련 앞에서 기도와 믿음

으로 극복한 기적의 역사를 되새기며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찬양하며 국가 앞에, 교회 앞에, 개개인의 고난과 고민을 기도하며 응답받는 은혜로운 시간이다.

흥해 앞에서 절실한 마음으로 구원을 바랐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 모두 이번 흥해작전에 참석하여 승리의 기쁨을 누리길 바란다.



①, ⑨ 이른 새벽부터 성도들에게 드릴 샌드위치를 준비하신 권사회
 ②~⑥ 어린 아기부터 어른까지 이른 새벽을 깨우며 달려나온 흥해작전
 ⑦⑩⑪⑫ 웨스트민스터홀 중앙 보조의자도 가득차, 맨뒤, 복도, 심지어 홀까지 보조의자를 놓아 예배를 드렸다.



교회회복을 위한 기금 기부자 명단

김명숙 감우균/김연화 정병무/박경희 최인에 이선희5
 허경화 정수길 송정윤 권영승 한길동 무명
 (다음 주 계속)

* 기부금 입금 계좌 : 신한 110-481-143925
 노문환 (서울교회장로회)

중도입국 탈북청소년 다큐멘터리 <경계에 선 아이들>

중도입국 탈북청소년 다큐멘터리 <경계에 선 아이들> 시사회가 6월19일(화) 오전10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다.

'중도입국 탈북청소년'이란 중국에서 팔려간 탈북여성들이 낳은 아이들로 한국 입국 3만2천여명의 탈북민 중 청소년 숫자의 절반 이상에 해당하며 그 숫자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 새로운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세이브NK'가 중국 현지 촬영 등을 통해 이들의 휴먼스토리를 담았고 국제 다큐멘터리·인권 영화제에도 출품 예정이다. 많은 참여와 관심 바란다.

(문의 02-3446-7181/www.savenorthkorea.com)





6.6(수) : 목자 같이 인도하시리라 (사 40:10-11) / 이종윤 원로목사

민수기 11장은 흥해를 건넌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과 역경 앞에서 넘어지고, 흔들리고,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모세의 인도를 따라 흥해를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다고 모세를 원망합니다. 원망할 처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흥해를 건너지고 불과 몇 일간을 걸었을 뿐인데 벌써부터 불평과 원망을 토해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며 모세는 극도의 긴장감과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셨는데 그들은 영양가 있고 정력을 강하게 하는 부추와 마늘이 없다고 하며 불평했습니다. 하

나님이 주신 것에는 관심도, 감사도 없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절규합니다. “어찌하여 주께서 종을 괴롭게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주의 목전에서 내게 은혜를 입게 아니하시고 이 모든 백성을 내게 맡기사 내가 그 짐을 지게 하시나이까”(민 11:11). 모세는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분노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의 보고로 인하여 모세의 고통은 극대화 되어 “내가 어떻게 이 백성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라며 두 번씩이나 거듭 말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라고 하신 적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라”(출

3:10). 하나님이 인도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한 것처럼, 오늘 주님의 몸 되신 교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미 독수리가 새끼를 안고 나르듯, 내가 내 백성을 인도하리라고 하셨습니다(출 19:4). “아버가 아들을 안고 나르듯, 여호와가 너희를 안고 나르신다”고 하셨습니다(신 1:31).

흔들리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인도, 보급, 구원과 업어주고, 안아주고, 붙잡아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 흥해를 건너 하나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6.7(목) : 하나님의 위로 (나 1:1-15) / 서명철 목사

하나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를 심판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하십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어떤 경고도 없이 인간을 심판하신다고 한다면 우리들 중에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나훔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인 앗수르 제국의 수도 니느웨에 대한 경고의 예언입니다. 지혜로운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들을 때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함으로써 화를 자초합니다.

나훔서는 나훔서보다 약 100여년 전에 기록된 요나서와 함께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예언을 기록한 선지서입니다. 그러나 요나서가 하나님을 대적하였을지라도 자신의 죄를 회개한 니느웨 왕과 그 백성을 마침내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

주고 있다고 한다면, 본서는 최악이 관영한 니느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을 통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하나님의 절대 공의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요나서와 나훔서는 그 강조점이 크게 다릅니다.

선지자 나훔의 이름의 뜻은 ‘위로’ 혹은 ‘위로자’입니다. 나훔서가 기록될 당시 앗수르는 당대 최강 대국인, 최고의 제국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최악이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을 먼저 멸망시킨 앗수르 제국은 파죽지세로 남왕국 유다로 밀고 들어와서 이제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러한 국가적 위기의 때에 나훔은 초강대국 앗수르의 침공으로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해 있던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

님의 위로를 전했습니다.

천국을 향하여 믿음의 여정을 가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나훔서의 말씀이 선과 악이 혼재되어 있는 이 나그네 길에서 사탄의 사주를 받은 불의한 자들로 인하여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크신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별지어다 아름다운 소식을 알리고 화평을 전하는 자의 발이 산 위에 있도다 유다야 네 절기를 지키고 서원을 갚을지어다 인이 진멸 되었으니 그가 다시는 네 가운데로 통행하지 아니하리로다 하시니라”(나 1:15).

하나님을 우리의 산성으로 삼고 그 품안에 피난한 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의 은총을 누리게 될 것이니 이 복을 받고 누리시기를 소원합니다.

6.8(금) : 이스라엘의 포도나무 가지를 회복하리라 (나 2:1-13) / 서명철 목사

나훔 1장에서 선지자는 니느웨의 멸망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예언하고 있지만, 본문 2장에서는 좀더 구체적으로 니느웨가 어떻게 멸망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1절). “파괴하는 자”는 앗수르를 멸망시킬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가리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통하여 니느웨를 심판하시는 까닭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 곧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기 백성을 위로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선지자 ‘나훔’의 이름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사람이 대단한 힘과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지만, 그 힘과 지혜는 매우 제한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라는 말을 하면서도 실제로 위험 중에 빠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는 기억도 하지 않고,

자신의 힘으로 감당할 수 있는 줄로 착각하다가 결국에는 절망하고 낙심에 빠집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는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자는 위기의 때에 기도할 것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는 위기를 당하여도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파괴하는 자’, 곧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보내어 니느웨를 치게 하셨습니까 ‘야곱의 영광’을 위해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의 영광, 유다 백성의 영광,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을 회복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을 보내어 니느웨를 치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막을 길이 없습니다. 막강한 바로 왕도 하나님의 흥해를 피하지 못했습니다. 무소

불위의 니느웨의 앗수르 왕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와 말씀에 내가 네 대적이 되어”(13절). 하나님의 백성을 대적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의 대적이 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당한 고난은 우리의 시간으로 길고 긴 터널과 같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 카이로스로는 잠깐 지나가는 순간과 같습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신 이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벧전 5:10).

일점일획도 무오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간절하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6.9(토) : 피난처 (나 3:1-19) / 서명철 목사

니느웨는 식민지 백성들의 피로 세워진 살육의 성이었습니다.

니느웨의 죄악상은 살육과 거짓과 포악과 늑탈과 마술과 음행으로 대변 됩니다. 그들은 간사한 거짓과 술책으로 다른 나라들을 속이고 평화조약도 일반적으로 어기면서 종횡무진 제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그러나 거짓 위에 세운 제국은 영원할 수가 없습니다. 앗수르는 또 다른 제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는 앗수르가 행한 대로 그들의 죄를 보응하시되 그들이 다른 나라에게 약탈되고 최대의 치욕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니느웨가 아무리 부유하고 강성하다고 할지라도 자신들의 죄악 때문에 멸망할 수밖에 없음을 노아몬의 멸망에 비유하여 선포하고 있습니다(8절).

하나님은 난공불락의 성 니느웨 못지않게 과거에 철옹성이었던 애굽의 수도 노아몬의 멸망을 상기시키시면서 니느웨의 파멸은 너무나 당연한 역사적 귀결임을 말씀합니다.

나훔 3장은 앗수르 왕과 앗수르의 수도인 니느웨 성 사람들의 장례식에서 부르는 장송곡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니느웨의 장례식에는 조문객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니느웨를 위로할 자, 그들을 위해 애곡할 자를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께서도 앗수르의 죽음을 위로하지 않으시고 조롱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4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여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거룩한 야유’(Holy sarcasm)라고 합니다.

나훔 2장 후반부터 3장까지 하나님의 일곱 가지 조롱, 곧 사자의 조롱, 잔인성의 조롱, 음녀의 조롱, 노아몬의 조롱, 온갖 방비에 대한 조롱, 메뚜기 조롱, 장례식 조롱 등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조롱이 나옵니다.

잠언 3:34에서는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조롱하고 거부하는 사람들을 하늘에서 비웃으십니다.

위기의 때에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편이 되어 달라고 하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께 피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위로와 소망과 안식을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찬양예배 전 교회 회복 기도회

찬양예배 전 오후 4시 30분부터 교회 회복을 위한 기도회로 모이고 있다. 교회가 불같은 환난을 당하고 있는 이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직 찬양과 기도 뿐이다. 찬양과 기도는 사탄의 결박을 푸는 가장 큰 무기다. 오직 하나님께만 피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기도로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란다.

교회 사랑

많은 성도들이 좁은 공간에서 예배와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은 교회내 청결, 식사 후 뒷정리, 물과 전기 절약에도 힘써 주기 바랍니다.



홍해작전 기간 매일 새벽 식사를 준비해 주시는 권사회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통정

■ 개원: 8교구 장윤식 집사 (한국기타클리닉 협회 회장) 한국기타클리닉협회 서초구 서초동 1589-5

■ 개원: 8교구 이경옥 집사 독일폴크방음악원 경기도 양주시 삼송동 202-37 양주프라자4, 2층 tel 031-821-1242

■ 금주의 식사: 소고기카레라이스
송인권 장로
송인수 집사 박한옥 집사 가정 (어머니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 전 성도 성경 읽기표 -

교구(부서):

이름:

일 자	요일	1년 1독	확인	1년2독	확인
6월10일	주일	욘 33-36		행 14-18	
6월11일	월	욘 37-39		행 19-23	
6월12일	화	욘 40-42		행 24-28	
6월13일	수	시 1-7		롬 1-6	
6월14일	목	시 8-13		롬 7-12	
6월15일	금	시 14-18		롬 13-16, 고전 1-5	
6월16일	토	시 19-23		고전 6-11	

서울 주간기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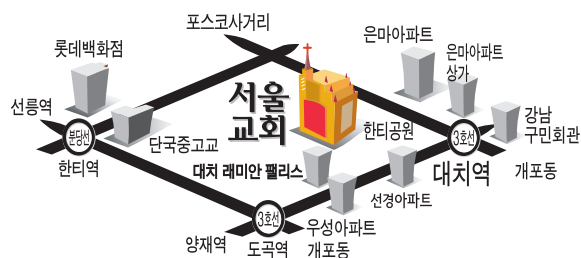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2018 홍해작전을 통하여 개인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앞에 놓인 홍해가 갈라지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 6월 12일(화) 북미회담을 통하여 한반도에 참된 평화가 정착되게 하시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속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 6월 13일(수) 지방선거를 통하여 나라를 바르게 섬길 일꾼이 선출되게 하옵소서.

■ 예배 및 집회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민스터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토)	본당

■ 교회 오시는 길



■ 서울교회QR코드

